



# 기업 번영의 지름길은 안전 안전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강한 기업 (주)한창

1979년 설립된 (주)한창(대표이사 허남걸)은 에어컨, 전열교환기, 차량용 닥터바이러스, PDP TV chassis base, 산업용에어컨, 온수기, 프레스 부품, 열교환기 부품 등을 주생산품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주)삼성전자에 OEM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현재 수원을 필두로 하여 아산공장, 인도공장 등을 가동하고 있다. 전체 직원은 약 500여 명에 달한다. 이곳은 '참, 알, 온'이라는 사훈 아래 '내실경영', '인재경영', '사회적 책임'의 경영방침을 펼치고 있다. 내부인력에 대한 자기개발 강화, 그리고 안전에 대한 회사의 역할 강화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취재 임동희 기자 ldhfree@safety.or.kr



### 산재예방유공자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주)한창은 최근 들어 안전에 대해 매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초창기부터 안전관리를 꾸준히 개선해온 결과, 최근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사업장으로 인정받고, 올해 산재예방유공자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안전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이로 인해 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기업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안전을 통해 기업의 번영을 이뤄나가는 곳이 (주)한창의 모습인 것이다.

### '3정 5S' 활동으로 안전의 생활화 구현

다른 제조 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곳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바로 기계·설비다. 순간의 방심 속에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기계들로 가득 찼다. 특히 제품 생산의 기초가 되는 프레스공정이 매우 많은 것이 이곳의 특징이다. 실제 이곳의 가장 큰 위험은 작동 부주의 또는 기계의 고장에 의한 협착 및 절단사고다. 이에 이곳은 이들 기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 예방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그 중 하나는 기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모든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작업을 실시하고, 반드시 방호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작동시킨다. 작업특성에 따른 기계 배치에도

만전을 기울인다. 다른 한 가지는 휴면에러를 방지하는 것이다. 안전수칙만 제대로 준수한다면 위험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행동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는데 주력한다.

실제로 허유신 전무이사부터 안전을 담당하는 마화수 관리부장, 박지석 대리 등 관리부 직원들은 작업 중에는 물론, 작업 전·후, 휴식시간, 심지어 퇴근 후에도 근로자들에게 기계에 대한 위험과 안전작업 수칙을 지속적으로 주입시킨다. 각종 교육과 점검 시에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리고 이곳은 근로자들이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노력한다. 대표적으로 '3정(정량, 정품, 정위치)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실천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면서 안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내 집과 같은 깨끗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불안정한 행동이 줄어든다는 생각에서다.

### 'ONE POINT 개선 활동'으로 위험요소 신속히 해결

직원들이 관심을 갖는 안전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안전활동에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다. 이곳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직원들의 많은 참여 속에 안전관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곳에서는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작은 것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사소한 것이라도 직원들이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선을 건의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과 함께 건의가 가장 많은 직원에게 특별 포상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확실히 보장해놓고 있다.

아울러 이곳 안전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바로 꾸준함이다. 매일 업무시작 전 근골격계 예방 체조, 안전조회 등을 실시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토록 하는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지속적인 'ONE POINT 개선 활동'을 통해 위험요소를 즉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 예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공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ONE POINT 개선 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주별로 실시한다. 그리고 이 활동 실적을 각 팀별 실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을 취한다. 여기에 모든 부서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ONE POINT 개선 실적발표회를 개최하여 그 성과에 대해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주변 정리정돈은 철저히', '바쁠수록 더 천천히'라는 모토는 이곳의 안전을 잘 요약해준다. 이들의 개선 활동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느 기업에서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라고 할 수 있다. (주)한창은 이 기본을 지키면서 어느새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안전기업으로 거듭났다. 이곳의 사례가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기본을 중시하는 안전문화가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

MINI INTERVIEW



허유신 (주)한창 전무이사

공감대 형성이 안전의 기본

안전은 직원을 가족같이 느끼는 회사, 그리고 회사를 가정같이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서로의 공감대를 토대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의 방침과 신념, 시스템 등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행동을 실천하려는 근로자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산업현장에 이러한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이것이 곧 회사와 나라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